

# ‘만두 종주국’ 중국서... CJ·풀무원, HMR로 K푸드 열풍

비비고 왕교자 만두시장 점유 1위  
풀무원 현지법인 흑자전환 성공

K푸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만두·두부가 종주국인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력과 유통망 및 온라인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비비고 왕교자가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풀무원 현지법인 푸메이 푸어식품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억 원, 영업이익률 6.6%를 기록하며 중국 진출 10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 ◆코로나가 가져온 기회...‘이커머스’ 가속화

특히 중국에도 비대면 문화가 널리지면서 한국 식품기업이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이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여한 풀무원



중국 현지에서 판매 중 비비고 만두 /CJ제일제당

중국 소비문화는 국내와 비슷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중국 온라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비대면 산업 시장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약 7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중국 온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8개월 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13배 성장했다. 중국 내 CJ제일제당의 만두 매출

은 2015년 90억에서 지난해 1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비비고왕교자’는 중국 2위 온라인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의 교자/완탕 카테고리에서 4월(31%)과 5월(33%)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풀무원의 경우 이커머스와 O2O(Online to Offline) 매출이 동기 대비 173%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개별 품목으로는 주력인 파스타와 두부가 각각 180%, 61% 성장했다. 2010년 중국 진출 당시 중국 식품유통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커머스와 O2O 같은 신유통이 중국 식품유통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10년 전 중국 식품유통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이 강세였지만 풀무원은 과감하게 이커머스와 신유통에 집중했다.

## ◆차별화+현지화

온라인 상거래 증가도 요인이 됐지만 K푸드의 인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화된 맛과 품질에 있다.

중국식 만두는 피가 두껍고 만두소를

같이 넣어 씹는 맛이 약하다. 반면 비비고 왕교자는 피가 얇고 쫄깃한 식감에 고기와 야채를 갈지 않고 굵게 썰어 넣어 원물 그대로의 씹는 맛과 육즙이 특징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차별점을 느껴 선호한다는 것. 또한 중국에서 만두는 ‘건강하진 않지만 편리한 음식’이란 인식이 강하다. 그에 비해 비비고 만두는 상대적으로 야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비고의 높은 품질 관리와 중국내 ‘한국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풀무원은 현지화로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물포장 두부보다 가공두부를 즐겨 먹는 중국 소비자를 고려했다. 두부를 얇게 썰 수분을 뺀 포두부 생산 시설을 현지에 완비한 것.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전역 두부 공급망을 갖춘 풀무원은 지난해 11월 북경 두부공장에 ‘가공두부’ 설비를 완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호이스타정’, 코로나 치료 도전

대용제약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안전성 인정받아 임상 2상 진입

대용제약은 만성 위장염 및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자체 생산해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개발 시기가 오래 걸리는 독성 등의 안전성 데이터를 인정받아 1상 시험 없이 곧바로 2상에 빠르게 진입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증 또는 중증증의 코로나19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카모스타트를 최대 14일간 투여하여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 소실까지의 기간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임상승인 즉시 임상을 개시해 신속하게 대상자 모집 및 투약을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다.

‘카모스타트’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에 독일 괴팅겐 라이프니츠 영장류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를 게재해 주목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모스타트’가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억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대용제약은 현재 동물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의 코로나19치료제 ‘DWRX 2003’의 임상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CGV에서 선보이는 영화

## 빅데이터가 엄선한 ‘CGV 영화 기획전’

머신러닝기법으로 추천작 선별

CGV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빅데이터 영화 추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을 위해 CGV는 영화 콘텐츠 정보와 CGV 관객 특성을 비롯해 개봉 당시 관객수, 만족도 등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와 머신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장르별 재개봉 추천작들을 엄선했다.

상영작으로는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공포 영화 ‘갯 아웃’, 액션 영화 ‘월요일이 사라졌다’가 선정됐다. 개봉 당시 인기를 얻은 영화를 6000원에 관

람할 수 있는 기회다.

‘맘마미아!?’는 소피가 엄마 도나의 찬란했던 추억을 통해 홀로서기를 배워가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뮤지컬 영화다. ‘갯 아웃’은 흑인 남성 크리스가 주말을 맞아 연인인 백인 여자친구 로즈의 부모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다. 마지막으로 액션 영화 부문에 선정된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오직 1가구 1자녀만 허락된 인구 통제 사회에서 한 명의 삶을 공유하는 일곱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아내 눈길을 끈 작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국내 첫 모체태아의학 연구

대한모체태아 의학회의 조산연구회에서 국내 최초로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게스테론 사용에 있어 근주와 질투여의 효과 비교, 평가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제하의 논문으로 이 논문은 SCI급 영국 국제산부인과 학술지 최신호에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석주 교수가 제1저자로,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주저자(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세경 기자



## 종근당, 정제사이즈 최소 ‘치주질환치료제’

잇몸 염증 저항력 강화

종근당은 복약편의성이 개선된 치주질환 치료제 ‘이튼큐 플러스(사진)’를 7일 출시했다.

이튼큐 플러스는 옥수수불검화정량 추출물 단일제제인 이튼큐에 후박추출물을 추가한 생약 성분의 복합제다. 주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치주인대의 재생을 도와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치조골을 재건시켜 잇몸속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후박추출물은 치주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와 항염효과가 우수해 잇몸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제품은 장기 복용에도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 치료제로 안전성이 입



증됐다. 종근당이 독자개발한 정제 축소기술 iLET 특허공법을 적용해 현재 출시되어 있는 동일성분 제품 중 정제 사이즈를 가장 작게 줄임으로써 다수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중장년층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복약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이튼큐 플러스가 치주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생존 위한 자구안”... 김완식, 비상경영 돌입

(이랜드이츠 대표이사)

코로나 장기화, 추가적 조치

외식 브랜드 자연별곡·수사·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이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경영 돌입 및 사업 전략 개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완식 이랜드이츠 대표이사(사진)는 이날 오전 비상경영 돌입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외식사업부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이랜드이츠는 지난 3월부터 대표이사는 급여 50%, 임원은 30%, 조직장은 직책 수당을 반납하는 등 노력을 기울



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표는 “전년 대비 매출 -40%라는 상황이 계속되며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안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브랜드 전략 재정비 ▲비용 통제 ▲신규 투자 자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 유한양행

###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확대

유한양행이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확대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최근 눈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인 ‘유한 루테인시아잔틴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필두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된 ‘유한 루테인시아잔틴플러스’에는 루테인시아잔틴 복합추출물에 노근(갈대 뿌리)과 다슬기, 모과, 포도씨유, 비타민B12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황반 색소 밀도를 증가시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가진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했다. /이세경 기자

